

#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성향과 결혼적응의 관계에서 종교적 문제해결의 매개효과

## Moderating Effect of Religious Problem Solv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 and the Marital Adjustment of Marriage Immigrant Women

석창훈

선문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Chang-Hoon Seog(chseog@sunmoon.ac.kr)

### 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성향과 결혼적응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문제해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도시(서울), 농촌(경북) 지역 그리스도인 302명(개신교 185명, 천주교 117명)을 대상으로 종교성향, 종교적 문제해결, 결혼적응검사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5.0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성향, 결혼적응, 종교적 문제해결 모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교성향과 결혼적응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문제해결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상황에서 종교성향과 종교적 문제해결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성 요인에 대하여 질적 분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적 삶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겠다.

■ 중심어 : | 결혼이주여성 | 종교성 | 결혼적응 | 종교성향 | 종교적 문제해결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s of religious problem solv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 and marital adjustment of married immigrant christian women. The subjects of study were 302 married immigrant women(185 protestant, 117 catholic) and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by using religious orientation scale, religious problem solving scale and marital adjustment scale. Th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SPSS 25.0.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 First, it showe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marital adjustment of married immigrant christian women and intrinsic religious disposition showed positive correlation. Second, religious problem solving style had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 and marital adjustment. Subsequent studies require qualitative analysis of the religious lives of married immigrant christian women.

■ keyword : | Marriage Immigration Women | Religiosity | Marital Adjustment | Religious Orientation | Religious Problem Solving |

\* 이 연구는 2015년도 선문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접수일자 : 2018년 04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6월 02일

수정일자 : 2018년 06월 01일

교신저자 : 석창훈, e-mail : chseog@sunmoon.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세계화, 개방화의 흐름 속에 국가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문화와 인종들로 구성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체류 외국인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1].

2018년 2월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2,132,211명으로 전년도 1,986,353명 대비 7.3% 증가하였다[1]. 2007년도 국내 체류외국인이 1,066,273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년 만에 약 2배 가까운 인원이 증가하였고 해마다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인식이 13.7%로 나타났고, 스웨덴과 호주는 각각 3.5%와 10.6%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성인 응답자의 31.8%에 달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국내로 이주하는 추세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의 의식은 다문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이러한 인식이 저변에 깔린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이주민들 중에서도 매우 취약한 계층이 있으니 바로 ‘결혼이주여성’이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적 주체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부터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한계계층 남성의 결혼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추진된 결과이다. 이후 재중 동포인 조선족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주를 이루었다가 최근에는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외국인과의 혼인통계에서 2016년의 경우 총 혼인건수 281,635건 중 외국인과의 혼인은 21,709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여 전년도 보다 0.3%p 증가하였으며, 이 중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가 결혼하는 다문화혼인이 14,255건으로 총 혼인 건수의 5.1%였다. 한편 외국인과의 이혼통계에서 2016년의 경우 총 이혼건수 107,328건 중 외국인과의 이혼은 10,631건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한국남편과 외국인 아내가 이혼하는 경우는 5,505건으로 총 이혼 건수의 5.1%였다[3].

그 결과 한국의 이혼 현상에서 단기간에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부부의 결혼생활이 평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국제결혼은 몇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4]. 한국 및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해없이 한 두 번의 만남을 통해 결혼하는 국제결혼 구조의 문제, 그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문화에의 부적응과 갈등, 기대했던 결혼생활과 실제 결혼생활의 차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주류사회의 통합에의 어려움과 고립, 부양 및 양육 스트레스 등이 결혼생활 및 한국생활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 이처럼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적응은 일반 내국인 부부와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관련하여, 국제결혼을 추동하고 지속하는 신화화와 의례화의 과정들은 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나 개성을 무시하고 동질화하며, 특정한 방식으로 대상화하였다 [5]. 그 결과 이주여성들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상황에 대응하는 행위 주체들이며, 이주여성들의 정체성 형성과 상황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종교는 종종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성에 대한 독립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와 관련된 연구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들 연구는 종교 유무나 종교일치, 종교 활동 기간이나 교회활동 참여[6] 등과 같은 사회인구적 변인만 다루거나, 일부 종교에 국한해서 분석함으로써[7] 결혼이주여성이 갖는 종교성을 심층 분석하는 데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성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인 이유는 종교다원사회인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적 갈등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경제적 문제가 가정폭력과 같은 또 다른 심각한 어려움으로 인해 종교적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며[8], 종교성이 쉽게 확인 가능한 단일 영역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테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9].

종교관련 경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척도는 종교적 활동에의 참여 내지는 종교적 행동이다. 그런데 다양한 동기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외양적인 행동의 동일성은 척도의 설명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구성개념 중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종교성향(religious orientation)과 종교적 문제해결(religious problem solving)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종교성향은 신앙동기와 태도를 의미하는데 상담현장에서 단시간에 상담적 개입을 통해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때, 종교성향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종교적 문제해결이 결혼적응을 촉진시키거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매개변인이 될 수 있다면 상담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10]. 종교적 문제해결이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종교적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11].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종교성이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종교성향에 따라 종교적 문제해결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종교적 문제해결의 매개효과가 검증된다면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종교인의 종교적 성숙을 지원하는 상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성향, 종교적 문제해결, 결혼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성향과 결혼적응의 관계에서 종교적 문제해결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 검토

### 1. 결혼이주여성과 종교성

이주(immigration)란 ‘글로벌화’와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상품과 자본의 이동에 이어 사람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주는 인류의 역사상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16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서 유럽, 미국, 아시아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이주는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 상업에 따른 이주 외에 여성이주가 크게 부각되었고, 이러한 ‘이주의 여성화’를 통해 여성들이 이주의 주체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12].

그런데 결혼이주여성의 이주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결혼적응(marital adjustment)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적응이란 용어는 가족관계 연구에서 결혼의 질을 측정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결혼성공, 결혼만족, 결혼행복이란 말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13].

결혼적응은 1929년 미국의 Hamilton이 결혼생활 만족도를 측정하였던 것을 효시로 하여 그 후 여러 연구자들이 결혼적응이라는 개념을 재정의 하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들을 개발하였다[14]. 1930년대에서 195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Burgess와 Cottrell, Terman, Burgess와 Wallin과 같은 연구자들이 결혼적응도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15],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Harvey Locke와 그의 동료들의 활발한 연구 성과로 인해 이 분야의 연구가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16]. 1940년대와 1950년대 이후 결혼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때 결혼적응이라는 개념과 관련된 새로운 용어들 결혼만족도, 행복, 균형, 통합, 일치도, 응집, 갈등, 상호 작용 등이 출현하였다[17]. 1960, 1970년대의 다양한 이론적 개념의 출현은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분야의 왕성한 발전을 시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호 중복되고 모호한 개념들이 지나치게 난무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Spanier 등은 결혼적응 연구에서 이론적, 방법론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기도 하였다[18].

결혼적응은 ‘부부’라는 관계의 질적인 부분만을 강조할 뿐 ‘적응’이라는 역동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후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결혼적응의 개념에 점차 ‘적응과정’이라는 개념이 강조되면서, 결혼적응은 기능적인 부부관계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과정으로 제시되었다. 잘 기능하는 부부는 배우자 간에 서

로 자주 상호작용과정을 통하여 부부간의 중요한 문제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을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상호작용 과정이란 부부가 솔직하게 서로에 대해 대화를 하는 과정이다. 결혼의 만족, 행복, 적응, 의사소통 등의 의미를 포괄하는 것이 결혼의 질이며, 결혼의 질이란 부부관계의 주관적인 평가이다[19]. ‘결혼의 질이 높다’라는 것은 순조로운 적응, 적절한 의사소통, 높은 수준의 행복, 결합, 만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혼의 질이 낮다’는 것은 이와 반대인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결혼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결혼 전 변인, 부부 상호작용 변인, 문화적 변인 등 많이 요인들이 있다. 결혼적응과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는 데에는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양상이 매우 중요하다. 상호작용은 상호관계 특성으로 사회적 지지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을 둘러싼 생태적 관계를 통해 신체적·물질적·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김나영은 건강생성모델을 적용한 실험집단이 대조집단에 비해 통합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삶의 질의 전 영역에서 증진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20], 이해경과 전해인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가족, 친구, 의미있는 주변인의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와 결혼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으며[21], 최지명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국제결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가 결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하였다[22]. 종합하면, 선행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가족이나 친구, 친척의 사회적 지지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높으며, 종교활동과 같은 의미있는 사회적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 2. 결혼적응과 종교성향, 종교적 문제해결

종교성향(religious orientation)은 종교에 대한 동기와 태도를 의미하는 종교성 변인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주제이다. 종교성향은 신앙의 동기에 따라 외재적(extrinsic) 종교성향과 내재적(intrinsic) 종교성향으로 유형이 구분된다. 외재적 종교 성향은 종교를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use)’ 신앙태도를 의미하고, 내재적 종교성향은 종교적 신념을 내면화하여 삶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live)’ 신앙태도를 말한다[23]. 종교성향에 대한 연구들은 종교성향에 따라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어서 외재적 종교성향은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부적응 특성과 주로 관련이 있는 반면, 내재적 종교성향은 감사, 친사회적 행동 등과 같은 적응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24][25].

종교성향과 결혼만족도와 관계는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미숙의 연구에서 부부가 동일한 종교를 가질 때 만족도가 높으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26]. 박보갑은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기독교인의 경우에도 영적성숙도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27], 박성호는 신앙성숙도와 결혼만족도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28]. 정진관은 신앙성숙이 높을수록 부부갈등 상황에서의 이성적 갈등 문제해결 행동을 많이 하고 회피 및 부정적 감정, 행동표출은 감소된다고 분석하였다[29].

종교성향 간의 결혼만족도에서는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외재적 종교성향과 비종교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 보다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30]. 또한 종교성향이 중년부부의 자아정체감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춘화의 연구결과에서는 종교유형에 따라서 결혼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기독교인이 천주교인과 불교인, 무교인에 비해 전체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독교인과 불교인의 종교성향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에서 내재적 성향이 높은 집단이 내재적 성향이 낮은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31]. 내재적 종교성향의 사람은 종교가 자신의 삶에 내면화되어져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며, 이러한 신앙은 삶의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선행연구 결과에서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내재적인 종교성향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지영은 내재적 종교성향과 결혼만족도가

부적 상관(-0.43)을 나타내는 상반되는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결혼적응 또는 결혼 만족도에 종교성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32]. 첫째, 신앙생활의 이유가 다양한 것으로 볼 때, 종교적인 외형에 치중하면서 생활하지만 실제 자신의 삶에 신앙이 내면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신앙생활을 길게 유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평균연령과 결혼의 기간으로 유추해 볼 때, 한국사회는 중년이 되어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노후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도 가중되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 모두 사회적 위치와 가족 안에서의 역할과 책임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셋째, 부부관계 속에서 고통을 느낄 때,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부부 관계의 탈출구를 찾게 되는데 이혼이나 별거와 같은 비극적인 탈출구들도 있지만, 신앙생활과 공부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여지는 탈출구들도 있다.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를 회피하기 위해 교회생활에 치중한 신앙인들의 생활은 내재적 종교성향의 태도와 유사하게 보여질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종교성향 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종교성향에 따른 결혼적응과의 관련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아울러 또 하나의 종교성인 종교적 문제해결에 대해 살펴보면, 적응측면에서 스트레스나 위기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종교인은 개인이 취하는 종교적 신념이나 행동에 있어서 서로 다른 차이를 나타낸다. Pargament는 종교를 스트레스 문제해결 요인 중 하나로 개념화하였는데 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스트레스에 문제해결 하느냐에 따라 종교적 문제해결을 자기 주도형(Self-Directive), 책임전가형(Deferring), 공협형(Collaborative)으로 구분하였다[33]. 자기주도형은 신이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을 부여했다는 신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유형이며, 책임전가형은 문제해결의 책임을 신에게 전가하고 본인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유형이며, 공협형은 문제 해결의 책임이 본인과 신에게 같이 있다고 생각하

고, 문제에 처했을 때 신의 뜻을 생각하며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종교성향과 종교적 문제해결이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제석봉과 이성배는 한국형 ROS와 종교적 문제해결양식을 조사한 결과, 외재적 종교성향을 띤 사람은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신의 뜻과 의도를 궁구하며 함께 해결하려는 경향이 적은 대신에, 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수동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내재적 종교성향을 띤 사람은 공협형과 자기주도형에서 정적 상관을, 책임전가형에서는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34]. Yelsma와 Montambo는 종교적 문제해결 방식과 재활프로그램의 회복 기간의 상관을 조사한 결과, 공협형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형이 낮을수록 회복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조사하였다[35]. 이러한 연구 결과는 종교적 문제해결 방식이 일상의 장면에서 적응과 문제 극복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요컨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 또는 결혼 만족도와 관련하여 종교성향이나 종교적 문제해결을 주요 변인으로 삼은 관련 연구는 없으므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연구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겠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편의표집에 의해 연구자의 설문조사가 가능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우선, 참여자 선정에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의 교회를 정하여 목회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도시지역은 서울 성북구, 농촌지역은 경북 군위에 위치한 2개의 교회(개신교)와 성당(천주교)이 각각 선정되었고, 각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교인 결혼이주여성 32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불성실한 응답 18부를 제외한 302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연구 도구 및 절차

### 1) 결혼적응검사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은 이경성, 한덕웅이 개발한 결혼적응검사를 사용하였다[36]. 이 척도는 결혼만족, 이혼의도, 부부간 애정을 측정하는 3개의 하위척도와 주변가족과의 관계, 자녀만족, 경제적 만족 등의 9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부 서로 간의 적응에 초점을 두어 결혼만족(7문항), 이혼 의도(8문항), 부부간 상호소통(4문항)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Likert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결혼적응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경성, 한덕웅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계수는 결혼만족이 .91, 이혼의도가 .91, 부부간 애정은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이 .88, 이혼의도가 .87, 부부간 애정은 .90로 나타났다.

### 2) 종교성향척도

Allport의 이론을 기초로 제석봉과 이성배가 개발한 한국판 종교성향 척도를 사용하였다[37]. 이 척도는 외재적 종교성향과 내재적 종교성향을 측정하는 13문항씩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석봉, 이성배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계수는 외재적 종교성향이 .75, 내재적 종교성향이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외재적 종교성향은 .88, 내재적 종교성향은 .92로 나타났다.

### 3) 종교적 문제해결 척도

종교적 문제해결 척도는 Pargament 등이 삶의 문제에 대한 종교적 문제해결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을 바탕으로 Fox, Blaton, Morris가 재개발한 RPSS를 석창훈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38]. 총 18문항이며 4점 Likert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제해결을 선호함을 의미한다. 석창훈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계수는 자기주도형이 .89, 책임전가형은 .82, 공협형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형은 .87, 책임전가형은 .79, 공협형 .85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척도 이해를 높이고 타당도 높은 연구결과를 구하기 위해 상기 척도를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에 근거하여 총 3종의 외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로 전문번역기관(한국산업번역원)에 번역을 의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한글과 외국어 2종으로 구성된 문항을 제시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자료에서는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인 특성과 신앙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변인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결혼적응, 종교성향, 종교적 문제해결 간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종교성향과 결혼적응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문제해결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가 제시한 매개회귀분석(The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결혼이주여성의 일반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연령분포는 30세 이하가 6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1~40세가 30.5% 그리고 40세 이상이 8.2%로 나타났다. 개신교 신자는 전체의 61.3%인 반면 천주교 신자는 38.7%이며 거주지역은 농촌이 51.6%인 반면 도시는 48.4%로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거주기간은 3~10년이 69.2%로 가장 많았으며 2년 이하가 21.5%, 10년 이상이 9.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출신국은 베트남(31.8%)과 중국(29.5%)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조선족(13.9%), 일본(10.9%), 필리핀(8.6%) 순이었다.

표 1. 결혼이주여성의 일반특성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30세 이하	185	61.3
	31~40세	92	30.5
	40세 이상	25	8.2
종교	개신교	185	61.3
	천주교	117	38.7
거주지역	농촌	156	51.6
	도시	146	48.4
거주기간	2년 이하	65	21.5
	3~10년	209	69.2
	10년 이상	28	9.3
출신국가	조선족	42	13.9
	중국	89	29.5
	베트남	96	31.8
	일본	33	10.9
	필리핀	26	8.6
	기타	16	5.3

2.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성향, 종교적 문제해결 및 결혼적응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성향, 종교적 문제해결, 결혼적응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성향, 종교적 문제해결, 결혼적응 간의 상관관계

변인		종교성향		종교적 문제해결			결혼적응
		내재적	외재적	자기 주도형	책임 전가형	공협형	
종교성향	내재적	1					
	외재적	-.31**	1				
종교적 문제해결	자기 주도형	.08	-.02	1			
	책임 전가형	-.26**	.38**	-.22**	1		
	공협형	.42**	.12*	.18*	-.33**	1	
결혼적응		.46**	-.16*	.12*	-.37**	.41**	1

\* p<.05 \*\* p<.01

결혼이주여성의 내재적 종교성향은 공협형 종교적 문제해결( $r=.42, p<.01$ ), 결혼적응( $r=.46, p<.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외재적 종교성향( $r=-.31, p<.01$ )과 책임전가형 종교적 문제해결( $r=-.26, p<.01$ )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외재적 종교성향은 책임전가형 종교적 문제해결( $r=.38, p<.01$ )과 공협형 종교적 문제해결( $r=.12, P<.05$ )에는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이 있었으나 결혼적응( $r=-.16, P<.05$ )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공협형의 종교적 문제해결은 높아지는 반면 외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책임전가형의 종교적 문제해결이 높아지며, 결혼적응에는 내재적 종교성향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외재적 종교성향이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내·외재적 종교성향은 자기주도형 종교적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종교성향과 결혼적응과의 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외재적 종교성향과 내재적 종교성향이 종교적 문제해결을 매개로 결혼적응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3.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성향, 결혼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종교적 문제해결의 매개효과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성향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교적 문제해결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모델에 근거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성향, 종교적 문제해결, 결혼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우선 확인하였으며, 다음으로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하다. 즉,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다음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중다회귀분석 이전에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및 Durbin-Watson 계수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VIF는 모두 10이하로 나왔고, Durbin-Watson은 모두 2에 근접하여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의 [표 3]은 결혼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내재적 종교성향과 결혼적응간의 관계에서 종교적 문제해결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내재적 종교성향은 매개변인인 종교적 문제해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4, p<.001$ ). 2단계에서도 독립변인인 내재적 종교성향은 종속변인인 결혼적응에 유의미한 정

적 향을 미치고 있었다( $\beta=.18, p<.001$ ).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내재적 종교성향과 매개변인인 종교적 문제해결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매개변인인 종교적 문제해결은 결혼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beta=.38, p<.001$ ), 외재적 종교성향도 결혼적응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eta=-.45, p<.001$ ) 그 영향력이 2단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45 \rightarrow .25$ ). 또한 2단계의 설명력( $R^2=.12$ )에 비해 3단계의 설명력( $R^2=.33$ )이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Sobel Test를 한 결과에서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3.53, p<.001$ ). 이러한 결과는 종교성향과 결혼적응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문제해결은 매개변인과 독립변인 모두가 유의하고 독립변인의 회귀계수 값이 2단계에서보다 3단계에서 감소하면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종교성향과 결혼적응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문제해결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으며, 종교적 문제해결이 매개효과가 있으므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재적 종교성향을 감소시키고, 공협형 종교적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목회활동과 종교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 3.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성향과 결혼적응간의 관계에서 종교적 문제해결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결혼적응				매개조건 충족				VIF	Dubin-Watsin
	$\beta$	t	R2	F	1	2	3	4		
내재적 종교성향	.24	3.62**	.04	12.21	0				1.000	1,962
1단계										
2단계	.18	3.04**	.03	9.53		0			1.000	1,935
3단계 (독립)	.12	1.82					0			
3단계 (매개)	.38	6.24**	.23	51.24				0	1.115	1,802
외재적 종교성향	-.34	-5.32**	.24	32.43	0				1.000	1,831
1단계										
2단계	-.45	-7.24**	.12	68.46		0			1.000	1,751
3단계 (독립)	-.25	-6.34**					0			
3단계 (매개)	.44	4.82**	.33	51.24				0	1.024	1,721

\*\*p<.01

위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1][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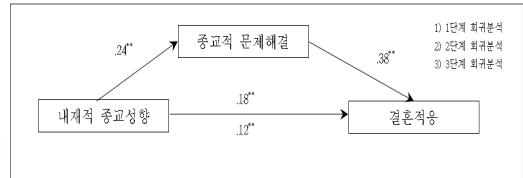


그림 1. 내재적 종교성향과 결혼적응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문제해결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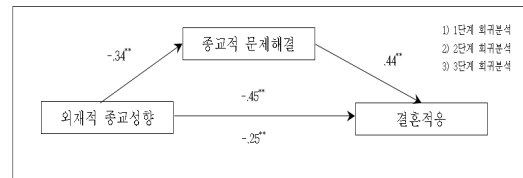


그림 2. 외재적 종교성향과 결혼적응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문제해결의 매개효과

## V.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성향과 결혼적응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문제해결의 매개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성향, 결혼적응, 종교적 문제해결 모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내재적 종교성향은 공협형 종교적 문제해결, 결혼적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외재적 종교성향과 책임진가형 종교적 문제해결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외재적 종교성향은 책임진가형 종교적 문제해결과 공협형 종교적 문제해결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결혼적응에는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재적 종교성향이 미성숙한 신앙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고, 내재적 종교성향이 성숙한 신앙태도로 적응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성향에 따



라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으며 적응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결과가 일치한다[39-41].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성향과 결혼적응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문제해결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교성향과 결혼적응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문제해결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종교성향은 결혼적응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종교적 문제해결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외재적 종교성향은 결혼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종교적 문제해결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종교성향보다 종교적 문제해결 방식과 같은 사회적 지지체계나 지역사회가 더 중요하다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42-45].

본 연구는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상황에서 종교성향과 종교적 문제해결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1세기 시작에 즈음하여 '초다양성(super-diversity)' 개념으로 유명한 옥스퍼드대학의 Vertovec는 '서구의 새로운 종교 지평' 컨퍼런스에서 종교와 이주에 관한 기존 연구가 이주민에게 현저히 나타는 종교현상에만 집중하였으나, 이제는 사회변동의 다양성이라는 맥락 하에서 종교조직의 변용과 이동, 이주민에 대한 정치적 인식개선, 여성의 지위와 역할변화, 새로운 세대 출현, 인종 및 종교적 다양성 등과 같은 제요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46].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종교성향척도 및 종교적 문제해결척도를 사용함으로써 비그리스도인의 종교성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인 한계를 지닌다. 향후에는 종교다원사회를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성 척도를 다양하게 개발·분석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적 삶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겠다.

#### 참 고 문 헌

- [1] 김순옥, 임현숙, 정구철,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도와 삶의 질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도시와 농촌지역의 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0호, pp.253-266, 2015.
-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8(2).
- [3] 여성가족부,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정책연구보고서, 2015.
- [4] <http://kosis.kr/>
- [5] 김현숙,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2호, pp.135-159, 2010.
- [6] 유기쁨, “다문화사회의 종교를 묻는다; 결혼이주 여성과 종교,” 종교문화비평, 제19호, pp.86-132, 2011.
- [7] 손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종교의 역할-다문화선교를 중심으로,” 복음과 선교, 제28호, pp.191-234, 2014.
- [8] 남춘모, “다문화가정의 종교가 가족통합과 정체성 확립에 미치는 영향 : 일본인 결혼이주여성(통일교)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제56호, pp.249-265, 2017.
- [9] 유기쁨, “다문화사회의 종교를 묻는다; 결혼이주 여성과 종교,” 종교문화비평, 제19호, pp.86-132, 2011.
- [10] J. F. Schumaker, *Religion and mental health*,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11] 박미하,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성준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복음과 상담, 제25권, 제1호, pp.37-64, 2017.
- [12] 석창훈, *종교생활척도(RSI)개발과 종교적 성숙이 스트레스 수준 및 종교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13] 이해경, 정기선, 유명기, 김민정,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0권, 제5호, pp.258-298, 2006.
- [14] 이영희,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권,

- 제2호, pp.39-78, 2011.
- [15] 김현숙,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2호, pp.135-159, 2010.
- [16] 문혜숙, *부부적응과 성적적응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17] 이경성, 한덕웅, “결혼적응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제8권, 제3호, pp.679-705, 2003.
- [18] 홍미기,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19] G. B. Spanier and R. A. Lewis, “Marital quality: a review of the seventi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42, pp.96-110, 1980.
- [20] 김나영,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생성(salutogenic)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21] 이혜경, 전혜인,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9권, 제4호, pp.413-432, 2013.
- [22] 최지명, *국제결혼 부부의 의사소통방식, 정서적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23] G. W. Allport and J. W. Ross,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 No.4, pp.432-443, 1976.
- [24] 제석봉, 이성배, “종교성향검사(ROS)의 개발과 종교적 성향이 적응 및 종교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종교연구*, 제11호, pp.245-280, 1995.
- [25] 석창훈, *종교생활척도(RSI)개발과 종교적 성숙이 스트레스 수준 및 종교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26] 김미숙, “도시 부부의 결혼 안정성 및 그 관련 변인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8권, 제1호, pp.171-183, 1990.
- [27] 박보갑, *개신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결혼만족도의 차이*,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28] 박성호, *부부의 자아존중감, 내적 통제성 및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29] 정진관, *기독교인의 신앙 성숙과 부부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30] 김영인, *기독교인의 종교성향과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의 상관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31] 배춘화, *종교성향이 중년부부의 자아정체감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32] 이지영, *기독교인 성인의 애착과 종교성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33] K. I. Pargament,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coping : theory, research, practice*, Guilford, 1997.
- [34] 제석봉, 이성배, “종교성향검사(ROS)의 개발과 종교적 성향이 적응 및 종교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종교연구*, 제11호, pp.245-280, 1995.
- [35] P. Yelsma and L. Montambo, “Patient’ and spouses’ religious problem solving styles and their psychological health,” *Psychological Report*, No.66, pp.857-858, 1990.
- [36] 이경성, 한덕웅, “결혼적응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제8권, 제3호, pp.679-705, 2003.
- [37] 제석봉, 이성배, “종교성향검사(ROS)의 개발과 종교적 성향이 적응 및 종교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종교연구*, 제11호, pp.245-280, 1995.
- [38] 석창훈, *종교생활척도(RSI)개발과 종교적 성숙이 스트레스 수준 및 종교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39] 제석봉, 이성배, “종교성향검사(ROS)의 개발과 종교적 성향이 적응 및 종교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종교연구*, 제11호, pp.245-280, 1995.

- [40] 이지영, *기독교인 성인의 애착과 종교성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41] 박미하,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복음과 상담*, 제25권, 제1호, pp.37-64, 2017.
- [42] 이해경, 전해인,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9권, 제4호, pp.413-432, 2013.
- [43] 최지명, *국제결혼 부부의 의사소통방식, 정서적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44] 홍미기,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45] 김경범, 박철민, “도시화정도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통합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분석 : 특별·광역시 지역과 도지역 거주자의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4호, pp.214-222, 2018.
- [46] S. Vertovec, *Anthropology of 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 New Directions*, Routledge, 2009.

저 자 소 개

석 창 훈(Chang-Hoon Seog)

정회원



- 1988년 2월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1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철학박사)
- 2014년 4월 ~ 현재 : 선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상담, 다문화교육